

제3회 교사대상 동아시아사 교과서 학술회의

‘동아시아사’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2012.9.13(목) 15:00~19:00

재단 대회의실

Contents

외의 개요 ————— 5 p

발 표 1 ————— 7 p

박중현(양재고등학교)

발 표 2

박성기(하남고등학교) ————— 15 p

한경아(한영고등학교) ————— 23 p

발 표 3 ————— 33 p

김정인(춘천교육대학교)

지 쟁 토 론

김해용(영동일고등학교) ————— 41 p

황지숙(여의도고등학교) ————— 45 p

윤세병(대전대덕고등학교) ————— 47 p

오세운(용산고등학교) ————— 49 p

이동욱(숙지고등학교) ————— 51 p



2012 아계 동아시아사 교원연수 추진내용	53 p
동북아역사재단 교사 및 청소년 교육사업 안내	55 p
11기 역사 아카데미 행사 안내	59 p
청소년대상 역사 콘서트 행사 안내	61 p
동아시아사 관련 건의사항	63 p
메모장	65 p

교사대상 동아시아사 교과서 학술회의 추진 개요

□ 추진 배경

- 2012년 동아시아사 교과서가 고등학교에 현장 적용됨에 따라 해당 교원들의 전문성 향상 제고 및 의견수렴을 통해 사업 추진에 반영하기 위함.

□ 추진 내용

- 행사명 : 제3회 동아시아사 교과서 학술회의※ 1~2회는 2010년도 개최
 - 부제 : '동아시아사' 교과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 주최 : 동북아역사재단
- 일시 및 장소 : 2012. 9. 13(목) 15:00~19:00, 대회의실
- 대상 및 규모 : 서울·경기지역 역사 교사 및 관심 있는 교사 50명
- 세부 일정

시간	순서	내용	진행
15:00~15:10	개회식	행사 소개 및 인사말씀	이관배 교육팀장
15:10~16:40		1부(사회 : 임상선	역사연구실 2팀장)
15:10~15:30	발표1	'동아시아사' 현장수업과 그 과제	박중현(양재고)
15:30~16:20	발표2	- 인구이동과 문화교류에 등장하는 일본의 이해 - '동아시아사' 교과서 수업의 실제	박성기(하남고) 한경아(한영고)
16:20~16:40	발표3	'동아시아사' 교육과정에 따른 평가 기준과 사례	김정인(춘천교대)
16:40~16:50		휴식	
16:50~19:00		2부(사회 : 박중현 / 양재고)	
16:50~17:40	토론회	지정 토론(각 10분씩, 5명)	김해용(영동일고) 황지숙(여의도고) 윤세병(대전대덕고) 오세운(용산고) 이동욱(숙지고)
17:40~19:00		전체 토론 : 참가자 전원	

발표문

‘동아시아사’ 현장 수업과 그 과제

박중현(양재고등학교)

1. 들어가기

2007년 처음 교육과정에 등장한 이후 ‘동아시아사’는 여러 우여곡절을 거치며 2012년부터 학교 현장에 실시되게 되었다. ‘동아시아사’는 교육과정 개발 당시부터 많은 논란에 부딪혔다. 이 과목은 2006년 ‘역사교육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당시 점증하는 역사 갈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한다는 명분에서 출발하였지만 개발자들은 동아시아 시민으로서 청소년의 성장에 주안점을 두었다.¹⁾ 이를 위해 정치보다는 문화에 대한 비중을 높였다. 상대의 문화와 역사를 배움으로써 같음과 다름의 차이를 인식하고, 갈등을 넘어 평화를 지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교과의 목적과 방향성에 대하여 현장 교사들의 공감대는 높은 편이다. 특히 2012 학년도 채택에서 세계사보다 많은 채택 부수를 기록함으로써 기본 취지와 과목에 대한 인지도는 확보하였다고 할 수 있다.²⁾ ‘동아시아사’ 교과목의 정착률을 위하여 동북아역사재단을 중심으로 많은 자료의 발간과 교원 연수가 이루어졌다. 전국역사교사모임에서는 2009년 참실 과제로 ‘동아시아사’를 선택하여, 학교 현장의 교육과정 검토와 수업 실천 그리고 토론대회가 열렸다. 일부 교사는 소모임을 만들어 교과서를 분석하고, 학교 현장에 필요한 문제들을 고민하고 있다. 한

1) 정연, 「고등학교 <동아시아사>의 성격과 내용체계」, 『동북아역사논총』19호, 2008에서는 ‘동아시아사’가 등장하는 배경과 교육과정의 내용과 체제 등에 대하여 전반적인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2) 교육과정 등장 즈음에 교과서 서술의 토대를 언급한 학위논문도 제출되었다. 황지숙, 『상대화 중심의 동아시아사 인식과 교육방안』,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6

대학에서는 대학원 수업 과정에서 교육과정·교과서 검토를 한 학기 동안 진행하고, 그 내용을 학술지를 통하여 발표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나 2012년 교과목의 실시와 함께 학교 현장은 많은 어려움에 봉착하였다. ‘동아시아사’가 갖는 생경함이 우선이겠지만 이외에도 여러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하에서는 학교에서 수업을 실시한 경험과 기타 제기되었던 문제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동아시아사 교육과정의 방향

‘동아시아사’ 교육과정에서는 이 과목을 ‘동아시아 지역에서 전개된 인간 활동과 그것이 남긴 문화유산을 역사적으로 파악하여 이 지역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나아가 지역의 공동 발전과 평화를 추구하는 안목과 자세를 기르기 위해’ 개설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즉 과거의 인적, 문화적 교류를 통해 상대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안목을 높이는 것이 일차적 과제이다. 다음은 이를 통해 평화를 지향하는 인간을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동아시아사’ 교육에서 가장 중시되어야 할 점은 역사적 사실을 통한 상대에 대한 이해, 이를 통한 평화지향적 태도를 기르는 것이다.

<동아시아사>의 목표는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 가.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동아시아 지역사를 파악하여 역사를 주체적으로 이해하는 안목을 기른다.
- 나. 각 시기 사회와 문화의 특징을 드러낼 수 있는 공통적이거나 연관성 있는 요소를 주제별 접근 방식을 통해 이해한다.
- 다. 동아시아 역사와 문화의 다양성을 탐구하여 그 특징을 파악하고, 타자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함양한다.
- 라. 각 시기에 전개된 교류와 갈등 요소를 탐구하여 문제 해결의 방향을 모색하는 자세를 가진다.
- 마. 주제와 관련된 자료를 비교, 분석, 비판, 종합하는 활동을 통해 역사적 사고력을 신장시킨다.

동아시아 지역사로서 균형 잡힌 시각을 바탕으로 주체적으로 역사를 보는 안목을 형성하고자 하였다. 주제별 접근을 통해 사회와 문화의 특징을 파악하고, 역사의 다양성과 타자 이해의 태도를 기르는 것이다.

한국사는 자주 접하고 호흡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세계사는 많은 기간 정해진 틀 속에서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 어렵게 다가오지는 않았다. 그러나 ‘동아시아사’ 과목은 ‘동아시아사’라는 단어가 주는 생소함이 우선 극복의 과제이다. ‘동아시아’란 어떤 영역과 역사 범위를 갖고 있으며, 그 흐름과 시기 구분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정체는 어떤 것인지에 궁금증을 가질 수 있다.

3. ‘동아시아사’ 수업에서의 어려움

학교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은 다음의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다. ‘동아시아사’의 생경함에서 나타나는 문제, 교과서 내용의 차이, 학습 자료 부족, 한국사·세계사와의 관계 및 평가 문제로 모아볼 수 있다.

1) ‘동아시아사’ 수업의 방향성 확보

앞 절에서 살펴보았듯이 ‘동아시아사’의 생경함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 대개 경우 3월부터 시작되는 학교 수업에서 ‘동아시아사’를 접하였을 때 이에 대한 준비를 제대로 한 교사는 그리 많지 않았을 것이다. 2월의 과목 및 시수 배정 때서야 자신이 수업을 담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다면 교과서도 2월 말경에서야 처음 접하게 되는 것이다.

이제껏 실시한 각종 연수를 감안하더라도 이미 그 내용과 교재를 접했을 경우는 10%도 채 안되었을 것이다. 수업을 전개하고자 하였을 때 기왕에 발간된 자료를 접했을 경우도 많지 않다. 설령 그러한 자료를 접했다 하더라도 수업을 어떻게 구상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많은 고민이 필요하였을 것이다. 이런 경우 재단이 실시한 기본 연수나 온라인 연수를 수강하였다면 많은 도움을 받았을 것이다.

2) 교과서 내용의 차이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집필과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는 교학사본과 천재교육본 2권이다. 바람직한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 동북아역사재단을 중심으로 두 차례 워크숍이 이루어져 기본 골격이나 서술의 기초 등에 대하여 논의가 이루어졌었다. 그러나 실제 등장한 교과서는 상당히 다른 모습으로 학교 현장에 배포되었다.

주제를 서술하는 체제와 형식의 차이는 그렇다 해도 내용 요소의 차이가 특히 많이 발견되고 있다. 두 권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 있는 것만을 다루기도 어렵고, 두 곳의 공통 요소를 다루려니 내용이 소략한 것이 현 실정이다. 한 예를 들면 베트남사에 대한 것을 한 교과서는 고대부터 계속하여 주제와 관련하여 다룬 반면, 다른 한 곳은 필요한 부분에만 제한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러한 차이 중에 대표적인 것이 베트남에서 성리학의 발달과 관련한 서술이 그것이다. 한 곳에서는 “베트남에서 유교 전통이 확고하게 세워진 것은 15세기의 레 왕조 때부터였다.”³⁾고 서술한 반면 다른 한 곳에서는 “베트남 사회에서는 성리학은 지배 이념을 확고하게 뿌리내리지 못하였다.”⁴⁾라고 서술되어 있다. 같은 내용이 전혀 다르게 서술되었다. 앞서 진한 교체기에 북베트남 지역에서 세워진 나라를 교학사는 ‘남월’이라 하였고, 천재에서는 ‘남비엣’이라 하여 다른 나라로 착각을 하게하고 있다. 검정·수정에서의 지적 및 편수 용어의 정비가 필요하다 할 수 있다. 6단원의 현대 부분의 도입에서 교학사본은 동아시아의 토지 개혁에 대하여 2쪽에 걸쳐 서술하였다. 반면 천재교육은 구체적 내용은 없고 일본에서 재벌과 지주제의 해체 과정에 농지 개혁이 있었다는 서술만 있을 뿐이다. 서술 체제도 교학사는 국가별 서술을 하고 있음에 비해, 천재는 주제 중심으로 동아시아를 아울러 쓰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한 권의 교과서만 가르치는 경우는 이러한 문제가 있는지조차 알 수 없다. 그러나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실시해야 하는 과목이므로 이런 혼란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3) 안병우 외, 『동아시아사』교과서, 천재교육, 2012, p.123

4) 김승렬 외, 『동아시아사』교과서, 교학사, 2012, p.

3) 학습 자료의 부족

한국사나 세계사와 같이 해방 이후부터 교육과정에 있던 과목들은 수십 년 간 내려오면서 많은 자료들을 축적해 왔다. 자료들로는 직접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학습 지도안, 학습지, 동영상, IT자료 및 자료집 등이 있다. 또한 많은 역사 관련 서적들을 통해 교양 또는 심화된 내용을 접할 수 있다. 자료의 ‘홍수’를 겪고 있다는 표현이 적절할 듯싶다.

그러나 ‘동아시아사’는 개설서로 쓸 수 있는 통사도 부족한 실정이다. 일본에서 출판된 번역서 2종류 정도가 있고⁵⁾, 필자가 최근에 발행한 청소년 대상의 통사가 있을 뿐이다.⁶⁾ 다만 근현대사는 몇 종류의 서적이 있다. 연구자들에 의해 집필된 것으로 근현대사와 관련해서 한 종의 저작이 있을 뿐이다.⁷⁾ 한중일 공동교재를 개발한 위원회에서 『미래를 여는 역사』(한겨레출판사, 2005), 『한일 교류의 역사』(혜안, 2007)가 있어 동아시아 사회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었다. 최근에는 『미래를 여는 역사』를 업그레이드한 『한중일이 함께 쓴 동아시아 근현대사』(휴머니스트, 2012)가 출판되었다. 전근대사의 경우는 한일의 역사교사단체가 공동 집필한 『마주보는 한일사』(사계절, 2007)가 한일 관계의 전근대사 이해에 도움을 주었다.

동북아역사재단에서는 교육과정 개발 이후 교원 연수를 진행하면서 자료집을 발간하였고, 교과서 집필자를 위해 집필안내서를 발간하였다. 이러한 자료들은 일반 교사들에게도 많은 도움을 주었다. 나아가 『동아시아의 역사 I · II · III』(동북아 역사재단, 2011)을 통해 교육과정과 관련한 심화된 내용들을 서술하고, 이를 전국의 각 고교에 배포하여 도움을 주었다. 2011년 말에는 수업 자료로서 IT자료를 만들어 재단 홈페이지에 탑재하여 온라인 학습이 가능하게 하였다. 이를 다시 오프라인 자료로 보급하여 학교 현장에서 실제 수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다수 학교의 수업에서 이를 사용하여 수업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2011년 말 교육과학기술부는 동아시아와 세계사 자료집을 제작하여 각 고교에 배포하였다. 이를 통해 평가 문제의 출제나 다양한 자료

5) 요시노 마코토 지음, 『동아시아 속의 한일 2천년사』, 책과함께, 2005 ; 일본역사교육자협의회, 『동아시아 역사와 일본』, 동아시아, 2005.

6) 박중현, 『청소년을 위한 동아시아사』, 두리미디어, 2012.

7) 유용태 외, 『함께읽는 동아시아 근현대사』, 창비, 2010.

수업이 가능하게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는 보다 심화된 자료의 출현을 고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4. 한국사 또는 세계사와의 관계

‘동아시아사’는 이제까지 학교 교육에서 한국사와 세계사가 전연 별개처럼 다루어졌던 것과 달리 두 과목에 모두 걸쳐 있다. 따라서 이것을 어떠한 입장에서 가르쳐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대두하고 있다. 교과 내용이 겹치는 것도 있고, ‘임진전쟁’, ‘병자전쟁’, ‘아시아·태평양 전쟁’ 및 ‘천황’에 대한 표기의 차이 등이 그것이다. 수능 등의 문제에서도 공통되는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다.

‘동아시아사’ 교과목의 취지는 최근 세계 역사학계의 흐름을 반영하여 고립된 한국사의 시야가 아니라 넓은 시선에서 나를 보자는 것이다. 즉, 한국사와 세계사를 연결하는 고리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시각에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듦으로써 세계사 또는 지역사의 구조와 현상을 이해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현장 교사의 고민만으로 해결하라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5. 평가의 문제

‘동아시아사’는 당장 2014년도 대학입시에 출제되게 된다. 지금부터 기산하면 14개월 후에 최초의 ‘동아시아사’ 수능 문제가 출현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동아시아사’ 수능형 문제는 올 5월 평가원에서 학교에 배포한 문제가 있었고, 정식으로 시험이 치러진 것은 6월 서울시 교육청에서 주관하여 실시된 전국연합평가가 유일하다. 기타 사설 모의고사 기관에서 실시한 것이 몇 차례 있을 뿐이다.

당장 내년에 치를 문제가 극히 귀한 상황 속에서 현장의 교사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 것인가라는 고민에 빠지지 않을 수 없다. 평가를 담당하는 교육과정 평가원과 수능 문제 출제의 기반을 제공하는 EBS에서도 많은 고민들이 있을 것이다. 또한 수능 문제는 고교 교육의 방향을 정해주기 때문에 ‘동아시아사’가 학교에서 어떻게 뿌리 내릴

것인가 하고도 깊은 관련이 있다.

평가의 문제는 평가 그 자체를 넘어 ‘동아시아사’의 성격을 규정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금년도 EBS에서 내신 대비용으로 방송된 내용을 보면 그러한 우려는 현실로 다가온다. 학교 수업을 하는 교사이든, 연합평가나 수능을 출제하는 출제자이든 과목의 개설 목적을 정확히 숙지한 연후에 이에 임해야 할 것이다.

주제사로 되어 있고, 동아시아상을 담보로 하는 이 과목에서 기존의 한국사나 세계사처럼 사실의 나열과 확인에만 집착하는 경우 과목 개설 목적이 사멸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역사교육 내의 적절한 합의와 범주가 주어질 필요가 있다.

6. 글을 나가며

‘동아시아사’는 역사상 처음 등장하는 과목치고는 나름대로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결코 만만치는 않다. 특히 고교 탐구과목은 대학입학이라는 절실한 현실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말 재미있고, 의미 있는 과목이 된다면 그 생명은 더욱 오래될 것이고, 21세기 초두에 역사교육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자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다음과 같은 점이 차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현재 만들어진 자료들도 수정·보완이 시급히 되어야 할 것이다.

자료가 아직은 완벽하지 않은 것들이 있다. 새로운 교과서가 출현하기 전까지 보완된 상태로 제공되어야 새로운 교육과정에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평가에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이다. 일정한 제한된 범주의 설정, 교육과정을 중심의 평가 등 일반 교사가 공유할 수 있는 틀이 필요하다.

셋째, ‘동아시아사’에서 목적하는 화해와 평화에 대한 태도와 관련된 것이다. 이 과목을 공부함으로써 학생들이 역사적 이해를 통해 그 실상과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것을 극복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발표문

인구이동과 문화교류에 등장하는 일본의 이해

박성기(하남고등학교)

1. 들어가는 글

2012년부터 고등학교 교육현장에서는 동아시아 과목을 수업하고 있다. 2001년 일본의 역사왜곡과 2005년 중국 동북공정이 국내에 알려지면서 동아시아의 새로운 역사인식과 필요성은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하였었다. 결국, 대부분의 역사인식과 해석이 그러하듯이 동아시아사 역시 현대의 시각에서 필요한 학문으로 대두되었다고 볼 수 있다. 현재의 시각으로 반영된 과목이었기에 동아시아 지역에서 전개된 인간 활동과 그것이 남긴 문화유산을 역사적으로 파악하여 이 지역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동아시아 각국의 상호 발전과 평화를 추구하는 안목과 자세를 갖도록 하는 것을 교육목표로 하고 있다.⁸⁾

문제는 그렇게 해서 개설된 과목, 동아시아사. 과연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처음 교과서 집필에 참여하였던 필자 중 한명으로서 했었던 고민이었다. 세계사 교과서 내용에서 단순하게 동아시아 지역의 역사를 나열할 것인가. 정치사 중심으로 서술할 것인가. 문화사를 서술할 것인가. 내용 전개에 있어서 난이도를 어디에 맞출 것인가. 상호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서술할 것인가. 주된 관점을 어디에 두고 서술할 것인가. 등. 다양한 고민 속에서 두 개의 출판사에서 교과서가 출판되었다. 그리고 거의 반반 정도의 점유율로 현재 학교 현장에서 수업이

8) 국가 교육과정 정보센터 <http://ncic.kice.re.kr/>(동아시아 교육과정 학습목표)

이루어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미약하나마, 1.2.3단원 특히 2단원에서 등장한 일본(왜)을 중심으로 2012년 1학기에 행했던 수업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각 단원별로 실시한 수업의 목표와 수업의 실제 못지않게 각 지역에 대한 수업을 각 시대에서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실시하였는가 하는 실천 역시 수업의 방향을 제공하여 주는 단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2. 수업의 실제

동아시아사를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직접 가르친다고 하였을 때, 소화하기에는 많은 분들이 저어함이 있었다. 그래서 동북아역사재단에서는 방학을 이용하여 지속적인 연수를 진행하였고, 수업 자료를 제작하였다. 2012년 학기가 시작하기 전, 동북아 재단에서는 두 개 출판사의 자료를 모아 파워포인트 자료를 제작하여 일선 학교에 배포하였다. 많은 분들이 의욕적으로 제작한 자료였고, 출판사 별로 차이가 있는 의도와 사실을 알 수 있는 측면에서 유용한 자료였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실제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각 교과서마다 다루는 내용들이 차이가 있어 때로는 학생들에게 설명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결국, 자료를 바탕으로 교과서에 맞게 재구성하여 사용해야 했다.

처음 수업할 때 학생들이 무엇보다 동아시아 학습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였던 시간을 잊을 수 없다. 한국과 중국, 일본의 국제관계. 마치 현대 정치사의 한 부분 같은 내용들을 설명하면서 학생들 역시 공감하였던 그 진지한 태도들. 이러한 내용의 도입은 ‘동아시아 속의 한국. 한국 속의 동아시아⁹⁾’자료로 소개한 교과서 내용이나, ‘지역 사회의 세계화¹⁰⁾’라는 소제목으로 서술된 교과서 내용에서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9) 천재교육 동아시아 교과서 17쪽.

10) 교학사 동아시아 교과서 11쪽.

문제는 실제 교과서 내용으로 들어가서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칠까 하는 고민이었다. 말 그대로 한·중·일·베트남 개개의 역사인가. 관계사인가...

대단원 2는 크게 인구이동·유교·율령·불교·조공·책봉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 단원을 통해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가. 기원을 전후한 시기부터 고찰하였던 이 시대는 인구의 이동과 함께 나타났던 각 지역의 공통점과 특색을 살펴봄으로써 교류 속에서 지역의 특징을 이해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모든 내용을 다 소개하는 것보다 한 지역에 대한 수업을 소개하면서 동아시아 수업 속에서 지향하는 방향성을 공유하고자 한다.

대단원 II에 등장하는 일본

고대 일본하면 흔히 떠오르는 상 하나가, ‘고대 삼국의 일본 문화 전파’라고 하는 한국사의 한 소재목이다. 국사에서 한국사로 바뀌었음에도 내용상·분량상 거의 바뀌지 않았던 내용들. 과연 한국 문화의 일본 전파라고 하는 일방적인 서술이 우리를 비롯하여 타자의 역사와 문화를 폭넓게 이해하는데 유용하게 작용할 수 있을까. 동아시아 지역에 현존하는 갈등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까. 적어도 동아시아사라면 기준이 한국사와는 내용이 달라져야 했다.

동아시아 교과서에서는 이러한 고대에 일본의 존재에 대해서, 두 개의 교과서 모두 ‘다원적 외교의 전개’라는 측면에서 일본의 독자성을 서술하고 있다.

왜는 5세기 남조와 책봉관계를 맺고, 신라·백제와도 서로 사절을 주고 받았다.

...일본은 신라와 발해를 조공국으로 간주하려다 외교적 마찰을 빚었다. 11)

11) 천재교육 동아시아 교과서 80~81쪽

7세기 일본은 수에 견수사를 파견하였다. ..일본은 이 시기부터 자국의 왕을 해가 뜨는 곳의 천자라고 칭하면서 중국 왕조와 대등하다는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일본은 스스로를 당과 대등한 국가로 인식하면서 신라를 조공국으로 간주하는 태도를 노골적으로 나타냈다. ...9세기 말 전당사 파견이 중지된 이후, 일본은 외래 문화와의 접촉을 끊고 독자적인 전통문화를 만들어 갔다.¹²⁾

이러한 일본 문화에 대한 다양성을 다루는 내용으로 대단원III에서는 일본 특유의 무사 사회 출현이라는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다.

3. 무인이 지배한 일본사회

...천황의 통치력이 저하되어 지방에서는 자체적으로 질서를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지방 호족들은 자신이 토지와 권리를 지키기 위하여 스스로 무장하였다. 무력의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이를 직업으로 삼는 사람들, 즉 무사가 등장하였다...¹³⁾

일본에서는 송이나 고려와는 달리 무사들이 지배층을 형성하였다. 무사의 출현은 중앙 정부의 약화와 관계가 깊다. 헤이안 시대 중기 무렵부터 귀족 세력이 왕권을 능가할 만큼 커지면서 조정이 기능이 약화되었다. 이에 따라 지방 각지에서 치안 불안과 분쟁이 발생하였는데, 이 때 유력한 농민이나 호족들이 스스로 무장하여 이를 해결하기 시작하였다. 이들이 무사가 되었다.¹⁴⁾

이러한 왜(일본)에 대한 서술은 유교·불교·율령·한자라고 하는 동아시아적 공통 요소를 간직하면서도, 지역에 따른, 일본 사회의

12) 교학사 동아시아 교과서 70~71쪽

13) 교학사 동아시아 교과서 99.

14) 천재교육 동아시아 109쪽

특수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을 주체적으로 서술하면서 당시의 시각에서 역사적 사실을 이해하는 틀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이웃 일본에 대하여 과연 궁극적으로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 것일까에 대한 고민이고, 이를 어떻게 실천할까 하는 것이다. 일본에 대한 어떤 역사적 사실이 동아시아 지역의 역사 전개 과정에서 일본을 주체적이고 개방적인 관점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이 지역의 특성과 현실의 과제를 올바르게 인식하고자 하는 동아시아 교육 목표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에 수업에서는 ‘백강전투’를 예로 들었다. 백강전투는 나당연합군이 백제의 도읍지 사비를 점령한 후 왜의 구원군과 백제 부흥군이 합세하여 나당연합군과 벌였던 전투이다. 현재 백강의 위치는 금강하구 혹은 만경강 하구로 보는 설이 있으나,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 는 않다. 당시 왜는 일본과 우호관계를 맺고 있었고, 약 4만 명의 군대를 파견했었다. 그러나, 이 싸움에서 나당연합군은 왜선 4백여 척을 불태우는 등 왜병과 싸워 크게 이겼다.

...일본이 당에 사신을 파견하여 교류하고 있을 때 한반도에서는 삼국 통일 전쟁이 시작되었다. 나·당 연합군이 백제를 멸망시키자, 일본은 백제 부흥 운동을 지원하는 군대를 파견하였다...15)

한반도 문화가 일방적으로 왜·일본에 건너갔는데, 이번에는 일본이 문화적으로 우월한 나라인 백제를 도와주었다는 서술. 일본은 왜 백제를 지원하기 위하여 군대를 파견하였을까. 게다가 일본 역시 당에 사신을 파견하는 등 친선 관계를 보이기도 하였었는데 당과 전투를 벌인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물론, 한반도에서 백제를 통해 선진문물을 수용하고자

15) 교학사 교과서 71쪽

하였던 당시 정치 상황과 무관한 일이 아닐 것이다. 기존의 고대 한일 관계에 대한 설정은 한반도의 선진문명이 일방적으로 고대 일본 열도 지역으로 이동한 듯한 서술이 대부분이었다. 삼국의 시각이 아닌 현대 한국의 시각으로 일본을 보고자 하였던 것은 아닐까. 일본을 상대적으로 폄하하고, 작게 보려고 하는 국수주의적 관점이 작용하였던 것이 아닐까. 임진왜란에 대한 역사와 식민지 시대를 거치면서 일본을 감정적으로 대하려고 하였던 피해주의적·민족주의적 시각이 역으로 바로 보는 데 걸림돌로 작용한 것이 아니었을까. 그러면, 반대로 삼국이 경쟁적으로 일본 지역에 사람을 보내고, 그들을 통하여 문화를 전파시켰던 이유는 무엇일까. 일본 열도의 입장에서 본다면 삼국의 갈등관계를 이용하여 각 지역에서 선진문물을 수용하였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현재 한일관계가 아닌 당시 일본 지역의 관점에서 본다면, 한반도의 정세 변화에 대하여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백제의 멸망으로 선진 문물을 수요할 통로를 상실한 일본의 입장에서는 백제에 대한 구원군을 보내야만 했었던 것이다. 대륙에 대한 관심의 끈을 놓을 수 없는 후대의 또 다른 역사적 사건이 여몽연합군의 일본 정벌이다. 1274년과 1281년, 두 차례에 걸쳐 고려와 몽골 연합군이 일본을 침략하였다. 일본의 대응과 바람으로 모두 실패로 끝났지만, 대륙과 일본 사이에 한반도의 역할을 강하게 각인시키는 사실이었다.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관심은 고려 말 왜구, 조선 시대 임진전쟁, 메이지 유신 이후의 정한론, 일제 강점기로 이어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고대 일본 지역에서 왜의 존재성을 부각시키는 서술은 천재교육 교과서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일본 열도의 왜는 한반도와 중국으로부터 선진 문화를 받아들여 아스카 문화를 발전시키는 한편, 다이카 개신을 통해 정권을 안정시키는데 성공하고 나라 이름을 일본으로 정하였다.16)

16) 천재교육 동아시아 53

김춘추는 간신히 고구려를 탈출하고 나서 왜를 찾아갔다. 그러나 거기에서도 백제와 왜를 갈라놓는 데 실패하고 말았다.¹⁷⁾

고대 한반도의 일본 지역의 문화·문명을 매개로한 밀접한 관계. 그러한 관계가 때로는 사신과견으로 때로는 전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하나의 관계가 일관성 있게 지속되지 못하고, 국내 정치의 변화, 국제정세의 변동에 따라 수시로 변하는 한일관계.

1609년 임진전쟁이 끝나고 11년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조선은 일본과 기유약조를 맺는다. 1945년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서 한국은 벗어난다. 그러나, 불과 20년이 지난 1965년 한국과 일본은 과거사 청산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국교를 정상화한다. 과연 일본은 한국에 있어서 어떠한 존재인가.

독도라고 하는 매우 민감한 문제. 일본군 ‘위안부’라는 우리 이웃들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는 2012년 현재.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와 ‘한일 군사정보협정’을 시도하기도 하였었다. 과연 한국에게 일본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러한 일본과의 관계를 해결하기 위하여 현재와 미래에 어떤 실천들을 하여야 할까.

동아시아 수업은 궁극적으로 동아시아 지역에 현존하는 갈등을 해소하는데 힘쓰며 지역의 상호 발전과 평화에 이바지하는 자세를 기르도록 하는데 있다. 현대적 관점을 두고 지나간 사실을 바라본다면 중국과 베트남을 비롯한 다른 지역을 보는 데에도 유용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동아시아의 지역에 대한 수업은 같은 대나무 가지의 분절된 마디라는 생각이다. 물론, 이러한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두 교과서 모두 ‘동아시아의 갈등과 화해’라는 내용의 중단원을 두고 있다. 현실의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이해하고 해결하는데 동아시아 수업은 매우 유용한 내용인 것이다.

17) 천재교육 동아시아사 83쪽

3. 수업을 마무리하며

2012년 1학기 수업은 집중이수제가 처음 시행되고 있는 해이다. 본교 인문계 학급 6개 학급 중 3개 학급에서 주 4시간씩 실시되었다. 그러나 그도 수학능력시험에서 큰 영향력이 없다는 현실에서 1시간은 국어 시간으로 대체해야 했다. 주당 3시간의 수업으로는 전체 진도를 다 마칠 수 없는 현실이었다. 교육과정 개편으로 2013년에는 주당 2시간씩 1년을 수업할 수 있게 되었다. 집중이수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만큼 학생들에게는 그만큼 수업부담이 줄고, 조금은 여유 있는 수업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수업을 마치며, 학생들의 감상을 들어보았다. 1학기 수업 시간은 자주 신문을 들고 들어가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소개하였었다. 수행평가로 관련된 신문기사 요약과 본인의 생각을 서술하게 했었다. 교사에 따라 다르게 운영되었던 수업은 차치하고, 순수하게 교과서 내용만으로 평가한 학생들의 생각 중 하나는 ‘중국중심적’이라는 것이었다. 학생들은 동아시아사의 필요에 공감하였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 중국의 분량과 내용이 많다는 사실은 학생들에게도 그대로 피부에 전해지는 것이었다. 중국사를 다시 배운 느낌이라는 감상을 적은 학생도 있었다. 다시 2학기 수업을 시작한다. 중원 지역에서 시작된 문화·문명이 동아시아 농경사회로 전파되면서 지역에 따른 특수성이 어떻게 전개되어가는 지 설명할 때 다시 고민되는 부분이다.

민감한 현실 문제에 대해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면서 어떻게 설명할까 하는 것도 역시 고민해야 할 문제이다.

발표문

‘동아시아사’ 교과서 수업의 실제

한경아(한영고등학교)

1. 동아시아사 학기별 학습 진도 계획

- 1학기 : I. 동아시아 역사의 시작 ~ IV. 국제질서의 변화와 독자적 전통의 형성
- 2학기 : V. 국민 국가의 수립 ~ VI. 오늘날의 동아시아

2. 동아시아사 학습 지도의 난점

- 교과서 단원 구성과 서술 방식이 학생들에게는 낯설고 이해하기 어렵다. 다시 말해, 통사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주제별로 중국, 한국, 일본, 베트남을 순서대로 간략하게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많다. 교과서 집필 의도에는 부합하지만 학습자나 교사 입장에서는 친절하지 못한 구성이다.
- 베트남 역사의 분량이 적어서 학생들이 베트남사의 맥락을 짚어 내기가 쉽지 않다. <교학사>의 경우에는 대단원에서 베트남사를 서술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특히 IV단원의 경우) <천재교육>의 경우에는 베트남사를 소단원의 마지막 부분 정도에 꼭 넣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서술면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예를 들어 ‘베트남은 수당의 지배에 저항하는 운동을 일으켜 10세기에 독립을 이루었다. ... 베트남은 독립 이후 공자와 제자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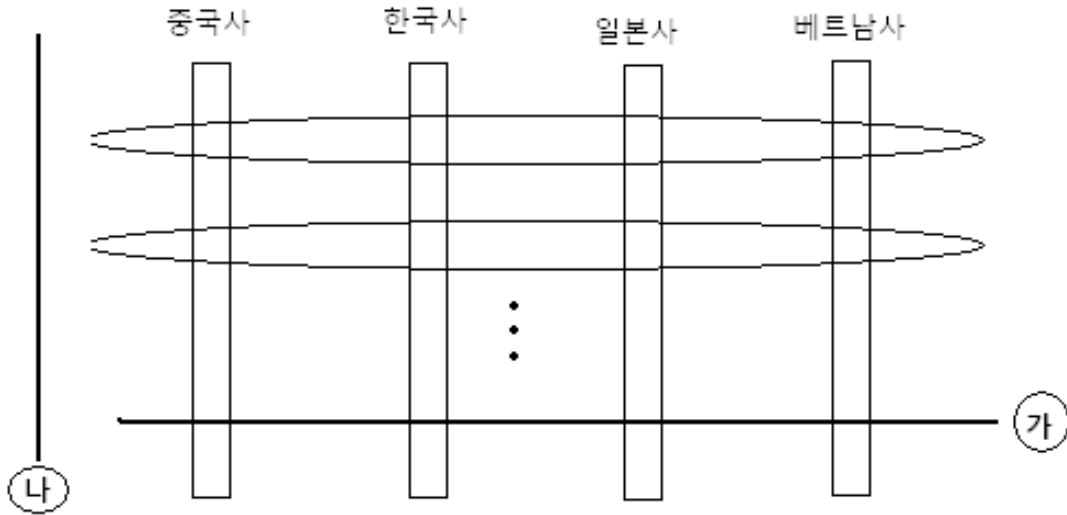
모시는 문묘를 세우고 과거제를 시행하여 ... 대월에서도 몽골의 침략을 막아내고... 베트남에서는 리왕조 때에 처음으로 과거가 시행 ... 베트남에서는 15세기 중엽에 레 왕조의 성종이 사서를 중심으로 하는 신유학 사상을 ... ' 등등.

베트남사에 익숙하지 않는 교사의 입장에서 이런 서술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면, 중국사나 일본사를 잘 모르는 학생들이 교과서 서술을 주제별로 이해하기 쉽지 않다는 것은 어찌면 당연한 일이다. 또한 익숙하지 않은 지명과 인명, 국가명과 왕조의 불일치나 일관성 없는 용어 사용은 학생들이 풀기 어려운 난관이다.

- 동아시아사 교과서가 주제별로 4개국의 연결고리를 찾아 비교하거나 각국의 교류사를 중심으로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한국사나 한국 근현대사, 세계사 교과서의 서술 방식과는 다르다. 이 때문에 학습 지도의 접근법을 찾기가 쉽지 않다. (개정된 세계사 교과서의 경우에는 대단원별로 동아시아와 유사한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학습 지도가 쉽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분량까지 많기 때문에 수업 준비에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3. 동아시아사 교과서 IV, V-1 단원 학습 지도 방법

교과서 내용을 그대로 읽어서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국가별로 통사적 접근법을 시도하였다. 예를 들어 동아시아사 교과서의 구성 방식이 ㉠과 같다면, ㉠의 이해를 위해 ㉡의 통사를 국가별, 단원별로 먼저 다루었다. 그리고 교과서 소단원의 주제별로 다시 수업을 진행하였다. 이런 방식의 수업을 계획했을 때 수업 시수 부족이 우려되기는 하지만, 교과서의 주제별 서술 방식에 맞춰 수업 하더라도 각 국가에 해당하는 단락별 내용의 전후 맥락을 설명해야 하는 시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전체 수업 시수에는 큰 차이가 없다. 특히 IV단원은 16~18세기, V단원은 19세기이기 때문에 앞 단원에 비해 각 국가의 정치적 변화를 설명하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4. 동아시아사 교과서 IV, V-1 단원 수업 구성안과 학습 지도의 주안점

- <천재교육> 동아시아사 교과서 기준

1) IV 단원 수업 구성안

- 이 단원은 16세기~19세기까지의 동아시아사를 다루고 있다. 그렇다면 중국의 명·청, 조선, 일본의 무로마치 막부~에도막부, 베트남의 레왕조~응우옌왕조에 대한 선행 학습이 필요하다.(통사의 내용은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종합해서 정리한다) 하지만, 19세기 각국 상황은 V-1.단원에서 각국 개항의 배경으로 학습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18세기까지만 다루는 편이 효과적이다. <교학사>의 경우에는 베트남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별도의 학습 지도가 필요하다.

	중국	한국	일본	베트남
16세기	<명> ·정치적 혼란 -환관과 관료대립 -북로남왜 -재정 궁핍 ·장거정의 개혁 시도 ·임진전쟁 원군파견	<조선> ·임진전쟁	<무로마치막부> ·감함무역 ·정치적 혼란 → 전국시대 → 도요토미 히데요시 통일 ·조선 침략	<레왕조> ·남북분립시대 -찐씨, 응우옌씨
17세기 18세기	<명→ 후금, 청> ·만주족-후금건국 ·후금의 조선 침략 ·이자성의 난→ 명 멸망 ·청의 조선 침략 ·강희제 ·옹정제 ·건륭제	·친명배금정책 ·정묘전쟁 ·병자전쟁 ·영조 ·정조	<에도막부> ·도쿠가와 이에야스 ·도쿠가와 요시무네	 ·띠이 썬 왕조

2) IV 단원 수업의 주안점

[1] IV-1. 17세기 전후의 동아시아 전쟁

- 임진전쟁과 병자전쟁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학습 지도가 가장 쉬운 부분이다. 내용 자체가 독립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쟁의 배경, 진행 과정, 결과를 각 국가의 상황과 연관 지어 설명한다면 기존에 사용했던 수업 방법으로도 무리 없이 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다. 또한 학생들이 가장 열심히 듣는 수업 내용이기도 하다.

- 동아시아사 학습의 목적이 평화와 공존의 추구라면 전쟁사 수업을 할 때 침략국과 피해국이라는 측면에서보다는 전쟁이 일반민의 의지와 무관하게 일어났고, 그로 인한 피해가 일반민에게 돌아간다는 측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학생들에게 「도모유키」를 먼저 읽게 하고 임진전쟁에 관한 수업을 진행하면 효과적이다. (소설에 대한 독후감은 수행 평가에 반영하였다.)
- 교과서 내용에는 베트남에 관한 내용이 없다. 두 번의 전쟁이 진행되는 동안 베트남의 정치적 상황에 대한 약간의 언급이 필요하다. 즉, 중국의 정치 상황이 베트남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지 학생들에게 생각할 여지를 줄 필요가 있다.

[2] IV-2. 교역망의 발달과 은 유통

- 교역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학습 내용이기 때문에 지도를 활용해야 하는데, 교과서 지도를 보면서 설명하는 것보다는 학생들이 직접 교역망 지도를 만들어 보는 편이 효과적이다. 먼저 각국의 무역에 관한 기본 정책을 학습한 후, 백지도를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고 백지도에 직접 교역의 흐름, 은 유통 과정, 그것이 각국에 미치는 영향을 기록하게 한다면 학생들이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
- <천재교육>의 은유통 지도는 지나치게 단순화되어 있어서 교과서 내용을 지도로 표현하고 있지 못하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 생산된 은은 조선 등 여러 경로를 거쳐 명으로 유입되었다’라는 내용을 설명하기에는 지도의 내용이 지나치게 단순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교학사>는 <천재교육>의 이런 점을 보완하고 있다. <교학사>는 ‘16세기 은 유통’ 지도와는 별개로 ‘동아시아 일대의 은 유통’ 지도를 삽입하여 교과서 내용의 이해를 돕고 있다. 그리고 <천재교육>에서 소홀히 다루고 있는 조선의 은 유통 관련 내용을 깊이 있게 다루고 있다. 두 개의 교과서를 함께 봐야 하는 이유이다.

- 교역망에서 빠질 수 없는 국가가 류큐 왕국이다. <교학사>에서는 류큐를 ‘역사는 흐른다’라는 부분에서 별도로 다루고 있다. <천재교육>교과서에 없는 내용이지만, 필요한 부분이어서 수업 내용에 첨가하였다.

[3] IV-3. 인구 증가와 도시화

- 인구 변화 그래프를 활용해서 인구 증가와 감소 시기에 나타난 각국의 정치, 사회, 경제 변화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는 편이 효과적이다. <교학사>에는 그래프가 없기 때문에 <천재교육>에 있는 그래프를 활용하면 좋을 듯하다. (그러나 <천재교육>의 일본 도시 인구 그래프의 경우에는 도시 인구 증감의 배경을 묻는 학생의 질문에 대답하지 못해서 정말 난감했다.)

[4] IV-4. 전통 사회의 완성

- <천재교육>은 서민문화가 IV-3.소단원으로 편성되어 있지만, <교학사>는 IV-4.단원에 들어있다.
- IV단원 도입 부분에서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정치, 사회적 특징을 간략하게 정리하면서 수업을 한다면 별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는 내용이다.

3) V - 1. 단원 수업의 주안점

- V-1. 단원 내용은 19~20세기 초에 해당하기 때문에 앞 단원과 같은 간략한 선행 학습은 필요 없다. 하지만 각 사건의 연관성을 파악하면서 학습하는 편이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먼저 국가별로 내용을 정리하여 자세하게 설명한 후 주제별 수업을 탐구 활동의 형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 중국, 일본, 베트남의 상황을 먼저 학습한 후 조선의 상황을 비교하면서 설명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중국	일본	베트남	한국
19 · 20 세 기 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차 아편전쟁 -난징조약 ·2차 아편전쟁 ·텐진조약,베이징조약 ·양무운동 ·청·프전쟁 ·청·일전쟁 -시모노세키조약 ·변법자강운동 무술정변 ·광서신정 -흙정헌법대강 ·신해혁명-중화민국 ·위안스카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일통상조약 ·메이지정부 -대일본헌법 ·청·일전쟁 ·러·일전쟁 ·조선합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응우옌왕조성립 ·1차사이공조약 ·2차사이공조약 ·프랑스령인도 차이나연방성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도정치 ·강화도조약 ·임오군란,갑신정변 ·갑오개혁 ·대한제국 -대한국국제 ·을사늑약 ·주권상실

- 개항과 관련된 탐구활동은 <교학사>, <천재교육>에 공통적으로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대로 활용할 계획이다.
- 각국 정치 개혁의 공통점과 차이점, 국제 질서의 변화 과정, 전쟁과 조약 체결이 국제 관계에 미친 영향, 러시아가 동아시아 국제 질서에 미친 영향, 일본의 대외팽창 과정 등에 관한 탐구활동을 수업 시간 중 글쓰기 수행평가의 형태로 실시할 예정이다. (탐구 활동에 해당하는 질문은 구체적이어야 한다)

<별첨>

■ 동아시아 교과서 IV, V 단원 비교 ■

	천제교육	교학사
IV. 국제 질서의 변화와 독자적 전통의 형성	1.17세기 전후의 동아시아 전쟁	16세기 중반의 동아시아 임진·정유 전쟁의 발생과 전개 정묘·병자 전쟁의 발생과 전개 명·청 교역과 동아시아 정세의 변화
	2.교역망의 발달과 은 유통	동아시아 세계의 은 유통과 중국 일본의 화폐 제도와 은 유통
	3.인구 증가와 도시화	조선의 은 유통 체계와 은 유통 동아시아 삼국의 교역과 교류 중국과 일본, 조선의 인구 증가
	4.전통 사회의 완성	도시화의 진전과 특성 명·청의 사회와 문화 에도막부의 사회와 문화 조선 후기 사회와 문화
V. 국민 국가의 모색	1.개항과 국민 국가 수립 노력	서구세계와 삼국의 개항 분명화 시도와 국민국가 동아시아 전통 질서의 변화
	2.제국주의 침략과 피해	1.개항과 국민국가 2.침략전쟁의 확대와

	일본 제국주의의 한국 지배, 세계 대전과 일본의 아시아 침략	민중의 피해	위상텐체제, 동아시아의 새로운 국제 질서
	침략 전쟁에 따른 피해		15년간의 아시아·태평양 전쟁
	19세기 후반의 민족 운동		새로운 시각, 신해혁명과 독립군 기지 건설
3.민족주의와 민족 운동	민족주의 사상의 확산		
	제국주의 침략에 저항한 민족 운동	3.반침략 저항운동	반제국주의 저항의 대중화와 분화
	반진·반제 사상의 형성		
4.평화를 향한 노력	항일을 위한 국제 연대		항일 전쟁의 확대와 반진 연대 활동
	자강과 침략의 논리 사회진화론, 신문과 근대 학교의 등장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
5.서구 문물의 수용과 사회의 변화	양력의 채택과 철도의 건설, 도시의 형성	4.서구 문물의 수용과 사회의 변화	근대 지식의 통로, 신문과 학교
	여성의 권리 신장과 여성 교육		일상에서 공간과 시간 변화
			서구식 도시의 생성

발표문

‘동아시아사’ 교육과정에 따른 평가 기준과 사례

김정인(춘천교육대학교)

1. 교육과정상의 평가 기준 관련 서술

- 성격 : ‘동아시아사’ 과목은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의 역사 영역에서 습득한 역사 이해와 인식을 바탕으로 동아시아 지역의 역사를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동아시아 사회의 형성과 전개 과정을 크게 몇 시기로 나누고, 각 시기별로 몇 개의 주제를 두어 지역 전체를 비교, 조망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 목표 : ‘동아시아사’ 과목은 동아시아 지역의 역사 전개 과정을 주체적이고 개방적인 관점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해하여 이 지역의 특성과 과제를 올바르게 인식하는 데 목표를 둔다. 다양한 관점에서 자료를 활용하여 역사적 사고력과 역사의식을 기르고, 나아가 동아시아 지역의 발전과 평화에 이바지하는 자세를 가지도록 한다.
 - 가.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동아시아 지역사를 파악하여 역사를 주체적으로 이해하는 안목을 기른다.
 - 나. 각 시기 사회와 문화의 특징을 드러낼 수 있는 공통적이거나 연관성 있는 요소를 주제별 접근 방식을 통해 이해한다.
 - 다. 동아시아 역사와 문화의 다양성을 탐구하여 그 특징을 파악하고, 타자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함양한다.
 - 라. 각 시기에 전개된 교류와 갈등 요소를 탐구하여 문제 해결의 방향을 모색하는 자세를 가진다.

- 마. 주제와 관련된 자료를 비교, 분석, 비판, 종합하는 활동을 통해 역사적 사고력을 신장시킨다.

2. 교육 과정에 따른 평가 기준

- 동아시아는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처음 채택된 신생 교과목이다. 시간 흐름에 따른 통사적 서술 체계를 갖고 있는 한국사나 세계사 교과목과는 달리 26개의 주제 중심 서술 방식을 택하고 있다. 따라서 평가는 문두, 지문, 답지가 특정시기 하나의 국가사를 묻는 방식의 출제를 일체 지양하고 동아시아 공통의 역사 사실을 묻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동아시아 교과서는 두 종이다. 이 중 하나는 교육과정에 충실하게 주제별 서술을 따르고 있지만, 나머지 하나는 삼국의 역사를 나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교육과정에 따른 평가 문항 개발이라는 차원에서 전자 교과서 위주의 평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검정 교과서 채택에 따른 유불리를 막기 위해서는 문두와 지문, 그리고 답지 구성 모두가 두 교과서가 공통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3.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예비 평가 문항 분석

1) 전반적 출제 경향

- 단원 간 통합형 1문항, 단원 내 통합형 1문항을 제외하고는 26개 주제에 해당하는 교육과정 성취기준 중 18개 관련 문항 출제
- 전 단원에 걸쳐 고루 출제되었으나, 근현대사는 5개 문항으로 전 근대사에 비해 비중이 낮은 편

단원	내용 요소
1. 동아시아 역사의 시작(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아시아의 자연환경 ◦ 선사 문화 ◦ 농경과 목축 ◦ 국가의 성립과 발전
2. 인구 이동과 문화의 교류(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간 인구 이동과 전쟁 ◦ 고대 불교 ◦ 율령과 유교에 기반을 둔 통치 체제 ◦ 동아시아 국제 관계
3. 생산력의 발전과 지배층의 교체(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방 민족 ◦ 농업 생산력의 발전과 소농 경영 ◦ 문신과 무인 ◦ 성리학
4. 국제 질서의 변화와 독자적 전통의 형성(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세기 전후 동아시아의 전쟁 ◦ 은 유통과 교역망 ◦ 인구 증가와 사회, 경제 ◦ 서민 문화, 각국의 독자적 전통
국민 국가의 모색(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항과 근대 국민 국가 수립 ◦ 제국주의 침략 ◦ 민족주의와 민족 운동 ◦ 평화를 지향한 노력 ◦ 서구 문물의 수용과 변화
오늘날의 동아시아(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후 처리 문제 ◦ 동아시아에서의 분단과 전쟁 ◦ 각국의 경제 성장과 정치 발전 ◦ 갈등과 화해

○ 예비 평가 20문항은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을 중심으로 살펴 볼 때 고르게 출제되었으므로 교육과정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음.

○ 신유형

- 1) 성리학, 불교 등 역사 개념 관련된 특정 국가의 자료를 제시하고 이로부터 동아시아 공통의 특질을 끌어내는 문항, 동아시아사의 교육과정이 지역사를 기반으로 주제 혹은 개념을 중심의 역사 교육을 지향하고 있는 바, 앞으로도 이와 같은 유형의 문항 개발 경향성은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2)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윤리는 물론 지리 교과목과의 접합적·통합적인 요소를 드러낼 수 있는 문항, 동아시아사는 주제 중심 역사교육을 지향하는 바, 이는 역사학이 종합학문이라는 특징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역사교육의 장이기도 함.

2) 유형별 문항 분석**(1) 기존 출제 유형과 유사한 문항**

2. 거란의 남면관과 북면관계, 그리고 여진의 맹안모극제 관련 자료를 제시하고 거란과 여진의 국제관계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음. 기존 세계사 출제 문항과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거란과 여진에 대한 개별적 역사 사실이 아니라, **동아시아 국제 관계**를 묻고 있다는 점에서는 차별성을 보임.
6. 당과 발해의 관계를 그린 표를 제시하고 두 나라 관계의 특징, 공통점, 그리고 상호 영향에 대한 해석을 묻고 있음. 두 지문은 기존 세계사와 국사 출제 문항 중에 자주 등장했지만, **동아시아 지역 내 각국 정치 제도의 차이점과 공통점, 그리고 상호 영향을 비교 분석하는 방식은 신 유형**

(2) 주제별 특징과 공통점을 찾는 신유형의 문항

5. 불교 경전과 사료에서 **불교 전파와 토착화의 양상**을 보여줄 수 있는 내용을 추출하여 지문으로 주고 그와 관련된 특징과 공통점을 도출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음.
7. 일본 성리학의 내용과 이황이 일본 성리학에 미친 영향과 관련된 일본과 조선의 사료를 제시하고 **조선, 일본, 남송, 베트남에서의 성리학의 전파와**

영향을 묻고 있음. 성리학이라는 공통의 전통이 각국에서 어떻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를 살피고 있음.

(3) 한국 관련 제시문이 중국, 일본의 사료 혹은 역사와 연결된 문항

3. 위만이 고조선으로 망명하는 **중국 사료**를 제시하고 그 시기가 진·한 교체기였음을 파악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음. 답지는 위만의 이주와 관련되어 과정, 결과, 배경, 영향 등을 파악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문두와 지문, 그리고 답지 등이 기존 역사 관련 교과목 출제 문항과 유사한 유형이나 답지에서 동아시아 각국의 상황을 제시하고 있음.
8. 임진전쟁과 관련하여 **일본과 중국의 사료**를 제시하고 이 전쟁이 동아시아 차원의 국제 전쟁으로서 어떻게 조선, 명, 청, 일본 등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묻고 있음. 문두, 지문, 답지 등 전반에 걸쳐 임진전쟁이 단순히 조선과 일본의 싸움이 아니라, 동아시아 체제를 흔들었던 국제 전쟁이라는 점을 알 수 있도록 구성됨.
9. 10세기 이후 양쯔강 일대에서의 농업 발달의 원인에 대해 **고려 말기 공민왕의 말**을 빌려 재현한 삽화로 구성하여 묻고 있음. 동아시아에서의 소농 경영의 발달이 보편적 현상으로 그 기반에 농업 생산력이 발전하였음을 단순히 중국의 상황만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고려 말 농업 생산력 발전과 연결시켜 묻고 있음.
10. 과거제를 설명한 **중국 사료**를 제시하고 베트남, 고려, 조선, 송에서의 과거제 정착과 영향 등에 대해 묻고 있음. 이 문항은 동아시아에서 문인지배의 전통을 세우는데 과거제가 미친 영향이 크고, 그것이 각국에서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살핌으로써 동아시아에서의 공통 역사 요소로서의 과거제가 각국에서는 어떻게 정착되고 변용되어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피고 있음.
12. 의회개설과 관련된 **중국의 자료**를 주고 이 의회 개설운동이 대한제국, 중국, 일본 등에서 어떻게 구현되었는지를 묻고 있음. 문항은 의회라는 대의기구의 설치가 근대 국민 국가 수립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 이에 대한 3국의 정치 상황과 운동을 함께 이해해야 풀 수 있음.

[4] 동아시아의 전반의 역사 현상이나 교류를 묻는 문항

1. 동아시아의 연평균 강수량과 1월 등온선을 제시하고 지역별 사회와 경제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음. 지리 과목에서 주로 사용하는 강수량과 등온선 등을 활용하여 동아시아의 **인문지리적** 특성을 묻고 있음.
4. 7~9세기 동아시아 세계의 상호 교류와 문물 전파를 주제로 한 탐구 활동 계획서에 들어갈 모둠 별 탐구활동 내용을 묻고 있음. 특히 신라, 일본, 당, 발해, 북위 등의 상호 문화 교류에 초점을 맞추어 해당 시기 **동아시아의 문화 교류**의 전반을 이해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음.
13. 동아시아에서 신석기 문화가 발달한 지역을 지도로 제시하고 각 지역 신석기 문화의 특징에 대해 묻는 문항. **신석기 문화권을 나타낸 지도**를 통해 신석기 문화가 동아시아에서 기원과 계통을 달리하며 여러 개 등장했음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함.
14. 17세기 국제 무역에 종사하는 푸저우 상인의 가상 편지를 분석하여 이 시기 동아시아 교역망에서 명, 네덜란드, 일본·왜구, 류큐 등의 역할과 연결 지어 이해할 수 있는 지를 묻는 문항. 동아시아 교역망의 발달에 있어 여러 나라 상인들의 다양한 활동을 묻고 있음.
15. 중국의 경극, 조선의 송과 산대놀이, 일본의 가부키 관련 그림을 제시하고 이들 공연이 함께 성행했던 18세기 이후 조선, 중국, 일본에서 발달한 서민문화에 대해 묻는 문항. 기존 각국별 서민 혹은 평민 문화의 발전을 하나로 묶어 동아시아 각국 문화의 공통점을 묻고 있음.
16. 5·4 운동에 관련된 중국 자료를 주고 그 배경이 되었던 제국주의의 중국 침략 과정을 묻는 문항. 제국주의 침략과 이에 대응하는 중국의 민족운동의 연관관계를 묻는 문항으로 일국사를 다룬 문항이긴 하나, 답지가 청일전쟁, 의화단의 난, 파리강화회의, 워싱턴회의, 만주사변 등 동아시아 국제 관계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구성되어 있음.
17. 러일전쟁을 풍자한 그림을 주고 전쟁의 결과를 묻고 문항. 답지는 일본, 러시아 등의 침략과 전쟁이 한국, 베트남, 중국, 그리고 동아시아 전반에 초래한 변화를 제시하고 있음.
18. 한일기본조약과 한국과 중국 간의 국교 수립을 위한 조약을 제시하고

그로 인한 영향과 동아시아에서의 국제 관계의 변화를 묻는 문항. 답지가 동아시아사 차원의 국제 관계 위주로 구성됨.

19. 돌궐이 부상한 이후 6세기 중국 지역을 존속했던 나라들을 지도로 나타낸 가상의 동아시아사 신문을 주고 당시 북주와 고구려의 외교 정책을 묻는 문항. 당시 중국과 한반도 국가들을 묶여 대외정책을 묻고 있음.
20. 동아시아 영토 갈등과 관련된 북방 4개 도서와 센카쿠 열도에 관한 자료를 제시한 뒤 지도에서 해당 지역이 어디인지를 묻고 있음. 영토 갈등과 관련하여 일본이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려 하듯이 여러 해양 영토가 분쟁 지역화 되었음을 파악하도록 하고 있음.

(5) 개별 국가사를 묻는 문항

11. 베트남의 주요 도시인 하노이, 후에, 사이공을 지도에 표시하고 하노이 지역을 중심으로 베트남의 역사 전반에 대한 이해를 묻고 있음. 베트남사에 대한 이해가 낮는데 베트남사 전반과 베트남의 지리적 상황을 함께 묻고 있어 매우 난해한 고난이도 문항. 20문항 중 유일하게 일국사 출제 문항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시기가 아닌 통사적 흐름을 묻고 있음.

토론문

‘동아시아사’ 교과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김해용(영동일고등학교)

2011년도에 조사한 서울시내 150개 고등학교(서울시내 전체 일반계고 300여 개)의 2012학년도 입학생의 교육과정을 보면 일반계 고등학교 150개 교중 인문사회계열에서 “동아시아사”를 개설하는 학교 115개 교, 이공자연계열에서 “동아시아사”를 개설하는 학교 20개 교이다. 대체로 일반계 고등학교의 인문사회계열에서는 필수 이수 과목으로나 선택 과목으로 개설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개설 시기는 3학년에서 학년 이수를 하는 학교가 51개 교로 가장 많고 2학년에서 학년 이수를 하는 경우가 25개 교로 뒤를 잇는다. 학기 집중 이수를 하는 학교는 39개 교 정도가 된다. 3학년에서 개설하는 학교가 60% 정도인 69개 교이다.

<표 1> 서울 시내 일반계 고등학교의 동아시아 개설 사례

시기	1학년			2학년			3학년			학년 분산 이수			합계
	1학기	2학기	학년	1학기	2학기	학년	1학기	2학기	학년	2개학기	3개학기	4개학기	
학교수		3		6	11	25	12	6	51	1			115

올해 교학사와 천재 두 출판사의 판매 권수가 합쳐서 7만 권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내년에 “동아시아사”를 개설하는 학교와 학생은 지금의 배 정도가 될 것이다. 인문사회계열 학생이 30만 명을 약간 상회하는 것을 감안하면 인문사회계열의 학생들 중 2/3는 동아시아사를 접할 가능성이 높다. “동아시아사”가 제도적으로는 일선 학교에서 안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동아시아사”가 학생들에게

흥미 있는 과목으로 받아들여질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는 아직 확신이 서질 않는다.

2012년 6월에 전국의 2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학력평가에서 학생들의 선택과목별 응시 인원과 비율을 살펴보면 “동아시아사”는 세계 지리에 이어 응시 비중이 두 번째로 낮은 과목이다. 아직 학생들이 과목에 대한 막연한 이해를 바탕으로 응시하고 있는 상황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동아시아사”의 선택 비중이 낮다. 역사과에서 “한국근현대사”를 대체할 수 있는 과목으로 부각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3과목을 선택해서 시험을 본 3학년의 4월 전국연합학력평가에서 “한국근현대사”는 전체 응시 인원 303,571명 중 143,280명이 응시하여 47.1%의 응시 비율을 보였다.

<표 2> 2012년 6월 2학년 전국학력평가 사회탐구 영역 선택과목별 응시 현황

연번	선택과목	인원	비율(%)	연번	선택과목	인원	비율(%)
1	생활과윤리	146,432	46.1	6	동아시아사	28,100	8.8
2	윤리와사상	70,387	22.2	7	세계사	31,934	10.1
3	한국사	72,815	22.9	8	법과정치	46,823	14.7
4	한국지리	76,527	24.1	9	경제	36,746	11.6
5	세계지리	27,073	8.5	10	사회문화	91,829	28.9

※ 비율은 사회탐구 전체 응시자(317,572명)에 대한 선택 교과 응시자 비율을 나타낸 값임

현 교육과정 속에서 “동아시아사”를 개설하는 학교나 배우는 학생 수는 앞으로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학생들에게 “동아시아사”가 배울 필요성이 있는 과목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동아시아사”의 위상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우선은 교육과정의 운영에서 가장 큰 변수가 대입인 고등학교의 상황을 고려하면 “동아시아사”가 현재 2학년에서 학생들에게 수업에 대한 흥미도, 내신이나 수능 등 대입과 관련된

선택 과목으로서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대입 제도의 변화 속에서 “동아시아사”의 위상을 확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동아시아사” 교과를 한 교사가 한 학교에서 잘 가르친다고 해서 교과목으로서 자리매김하는 것은 아니다. 학생들은 지속적으로 다수 선택 과목, 학습 부담이 적은 과목으로 집중되고 있다. 역사 과목들은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1학년 때에는 선호도가 높은 과목이지만 2, 3학년으로 올라가면서는 이와 같은 경향에서 멀어지는 과목이다. 대입 제도의 변화 속에서 “동아시아사”가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지금까지 동북아역사재단의 “동아시아사” 관련 활동이 교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다면 앞으로는 학생들의 입장을 고려한 분야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자면 한국사능력검정시험과 비슷한 형태도 고려해볼 수 있다. 동아시아사와 관련된 능력 검정 시험은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사보다 활용의 범위가 넓을 수 있다. 대입에서 한국사능력검정 시험 관련 모집 단위는 넓지 못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학사정관 전형을 준비하는 상위권 학생들에게는 응시할 필요성이 넓게 인식되고 있다. 동아시아사 관련 능력 검정시험이 있다면 무역통상, 어문계열 등의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매력적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고 본다. “동아시아사”를 개설한 학교의 운영단위를 보면 4단위 22개 교, 5단위 18개 교, 6단위 68개 교, 7단위 0개 교, 8단위 15개 교가 있었다. 동아시아사의 기준 단위가 5단위이고 일반고는 ± 1 단위의 증감이 허용되고, 자율 학교는 ± 3 단위의 증감이 허용되고, 자율형 학교는 운영 단위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학교에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학교들이 교육과정 운영의 편리를 위해 집중 이수보다는 학년 이수를 선호하기 때문에 6단위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5단위를 기준으로 하는 과목을 1단위 증가하여 6단위로 운영한다면 산술적으로는 17시간의 여유 시간이 확보되는 것이다(현 교과서는 2007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6단위를 기준으로 한 것임).

현재 검정을 통과하여 학교에서 사용되고 있는 두 종의 교과서는 모두 내용 요소 면에서 보면 이전의 역사 교과서에 비해 분량이 상당히 줄어들었다. 17시간을 더 활용할 수 있게 편성된 학교에서는

교수·학습 방법의 변화를 도모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역사 과목은 학생들의 이해를 돕는 과정에서 많은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생소한 “동아시아사” 과목은 설명에 시간을 더 할애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 그러나 17시간을 모두 그렇게 사용한다면 “동아시아사”가 학생들에게 다가가기 어려울 것이다.

교과교실제의 확대에 대비한 교수·학습 방법의 고민도 필요하다. 지금은 일부 선도 학교에서만 교과교실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앞으로 학생 수가 감소하면 여유 교실을 활용한 교과교실제가 확대될 것이다. “동아시아사”는 훨씬 풍부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과목이다. 학급 교실제에서 실시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보다 훨씬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다. 지금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좀 더 고민하고 부분적으로라도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

교수·학습 방법의 변화와 더불어 평가의 방법에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수행평가를 강조하고 평가에 활용한 자료를 일정 기간 보관하여 학생의 대입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것은 입학사정관 전형의 확대뿐만 아니라 대입 수시에서 반영하는 전형 요소의 다양화와 부합하는 평가의 변화 방향이기도 하다. 5지 선다형, 단답형의 틀을 깨고 수업 중에 이루어지는 수행평가를 확대하는데 1단위를 늘여 생긴 17시간을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

토론문

‘동아시아사’ 수업을 위한 준비

황지숙(여의도고등학교)

1. 교과서 선택과 관련된 고민

- 동아시아사 교과서 집필 참여, 동아시아사 과목이 있는 학교, 학교의 교과서 선택

2. 교과서 내용과 관련된 고민

- 사설 인터넷 강의, EBS 내신 대비 강의

3. 어디서부터 출발할까?

- 동아시아사 교육과정 : 내용요소와 성취기준
- 교육과정 해설서 : 성취기준 설명
- 교과서 집필 기준 : 주요 서술 내용과 유의점
-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예비 평가 문항

4. 교과서 검토와 학습 내용 선정

- 두 교과서 활용 방안 : 공통 내용?, 종합?, 상호보완?
- 농업 생산력의 발전과 소농 경영(농업의 발전과 소농 경영)
- 성리학의 전개(성리학의 성립과 확산)
- 은 유통과 교역망(교역망의 발달과 은 유통)

5. 교과서 내용 이해와 심화를 위한 강좌 및 참고 자료

[1] 동북아역사재단

- <동아시아사 교원 연수 및 자료집>
- <동아시아사 교과서 집필 안내서>
- <동아시아사 수업 참고 자료집-PPT>(동북아역사넷)
- <동아시아의 역사 I II III>

[2] 교육과학기술부

- <동아시아사 교육 기초 역량 함양>(교육과학기술부연수원 원격연수)
- <사료로 보는 동아시아사-동아시아사 교과서 보완 지도 자료집>

[3] 박중현 선생님 발표 원고에 제시된 참고 도서

6. 동북아역사재단에 바라는 바

- 동북아역사넷 활용 : 교사 공간 만들어 교과서·연수 관련 재단 측 자료, 교사들이 제작한 학습지, 수업 자료 및 수행평가 사례(한경아 선생님 발표 원고 중 <도모유키> 독후감 수행평가) 등 다양한 정보 교환과 공유
- 수업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동영상 자료 개발
- 동아시아사 평가 문항 개발

<토론>

‘동아시아사’ 교과서 현장 적용에 따른 의견

윤세병(대전대덕고등학교)

<토론>

‘동아시아사’ 교과서 현장 적용에 따른 의견

오세운(용산고등학교)

<토론>

‘동아시아사’ 교과서 현장 적용에 따른 의견

이동욱(숙지고등학교)

2012 하계 동아시아사 교원 연수 추진 내용

1. 추진 내용

- 연수 종별 : 직무연수
- 과정명 : 2012년 하계 동아시아사 교원연수
- 과정구분 : 전문성향상과정(교과지도)
- 이수시간 : 총 30시간(성적 무산출)
- 대상 : 각 기별 40명, 총 120명 ※기수 당 40명 이내로 모집
 - 서울 지역 : 전국 중등 역사 교사 80명(총2기)
 - 부산 지역 : 전국 중등 역사 교사 40명(총1기)
- 대상자 선정 방법
 - 서울 : 컴퓨터를 이용한 무작위 추첨으로 대상자 선정
 - 부산 : 선착순으로 대상자 선정 ※부산연수원 운영지침에 의거함.
- 연수 일정(2012년 하계)
 - 서울1기 : 2012.07.23.~07.27. (09:30~16:20, 5일간), 재단 대회의실
 - 서울2기 : 2012.07.30.~08.03. (09:30~16:20, 5일간), 재단 대회의실
 - 부산1기 : 2012.08.06.~08.10. (09:30~16:20, 5일간), 동서대 강의실
- 연수 실적
 - 기초 과정(15차시) : 2008년(3기, 120명 대상), 2009년(12기, 460명 대상)
 - 심화 과정(30차시) : 2010년(6기, 240명 대상), 2011년(6기, 240명 대상), 2012년(5기, 200명 대상)

2. 세부 일정

○ 서울 제1기 : 2012.07.23.~07.27. (09:30~16:30, 5일간)

교시 날짜	0교시	1교시	2교시	3교시	점심	4교시	5교시	6교시	7교시
	09:00 ~09:20	09:30 ~10:20	10:30 ~11:20	11:30 ~12:20	12:30 ~13:20	13:30 ~14:20	14:30 ~15:20	15:30 ~16:20	16:30 ~17:20
제1일 7.23(월)	등록/ 개강식	'동아시아사' 과목 현장수업 방법			과목	서구와 동아시아의 만남			
	강사	박중현(양재고)			강사	김정인(춘천교대)			
제2일 7.24(화)	과목	동아시아 속의 북방민족			과목	17·18세기 동아시아 국제무역과 경제변동			
	강사	임상선(동북아역사재단)			강사	민경준(부산대)			
제3일 7.25(수)	과목	근대 일본의 전개와 동아시아			과목	한일교류사의 시각			
	강사	박성기(하남고)			강사	손승철(강원대)			
제4일 7.26(목)	과목	동아시아의 은유통			과목	농업생산력의 발전과 소농민 경영			
	강사	한명기(명지대)			강사	안병우(한신대)			
제5일 7.27(금)	과목	베트남 근현대사와 동아시아			과목	평화를 지향한 노력과 국제연대			수료식
	강사	노영순(한국해양대)			강사	김정현(동북아역사재단)			담당자

동북아역사재단 교사 및 청소년 교육사업 안내

<교사 대상>

1. 동아시아사 교원 연수

- 연수 종류 : 집합, 사이버, 현장
- 대상 : 전국 사회과 중등 교원(현장 연수의 경우 집합 연수 이수자에 한함)
- 기간 : 연중

2. 역사교사 해외교환 방문수업

- 대상 : 상호 교사를 교환하여 역사수업이 가능한 국내외 학교
- 내용 : 양국의 역사 교사가 상호 학교에 방문하여 상대국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을 시행
- 일정 : 3-4월 선발하여 5월-10월 중 시행
- 방법 : 국내와 해외, 양국의 2개 학교가 파트너가 되어 한 팀으로 구성 (한 학교에서 교사 2명씩 참가, 총 4명이 한 팀을 구성)
- 지원 내용: 총 5팀(국내외 총 10개교, 20명)선발, 팀 당 600만원 지원

3. 역사교사들을 위한 강좌 - 역사아카데미

- 대상 : 교사 및 연구자, 관심 있는 시민 등

- 주제 : 독도, 동해표기, 일본군‘위안부’, 고구려 문제 등 전반
- 일정 : 상반기(5~6월)
- 방법 : 사전 신청자 또는 당일 신청자 참여

4. ‘동아시아사’ 관련 교과서 학술회의 및 자료 개발·보급

<청소년 대상>

1. 한·중·일 역사 갈등, 우리가 해법을 제시한다!

- 청소년 역사체험 발표대회

- 대상 : 전국 역사동아리(3~5인으로 구성, 지도교사 참여)
- 주제 : 한·중·일의 역사 갈등 현안을 주제로 한 역사체험 활동
- 참가방법 : 학교장 명의의 공문과 함께 역사동아리(또는 팀)가 신청서 제출
- 일정 : 참가 동아리 모집(3월), 예선(4~5월), 본선(6월, 15개 팀 내외)

2. 만나고 싶었어요! - 역사 콘서트

- 대상 : 청소년 및 관심 있는 시민
- 주제 : 독도, 동해표기, 일본군‘위안부’, 고구려 문제 등
- 일정 : 연4회(3월, 5월, 8월, 10월)

- 참가방법 : 참가를 희망하는 청소년 개별 신청
- 장소 : 서울 및 지방

3. 동북아지역의 역사갈등, 이것이 궁금합니다!

- 찾아가는 역사 강좌

- 대상 : 전국 초·중·고등학교
- 주제 : 독도, 동해표기, 일본군‘위안부’, 고구려 문제 등
- 일정 : 상반기 및 하반기
- 방법 : 역사 강좌 신청기간 중에 신청하여 선정된 학교를 대상으로 추진

<11기 역사 아카데미 행사 안내>

교사 및 시민대상 11기 역사아카데미

고구려의 역사와 문화 광개토대왕비를 읽다

- 일 시 : 2012.10.18(목)~11.29(목) 19:00~21:00
- 장 소 : 동북아역사재단 대회의실(서울 서대문구)
- 대 상 : 역사에 관심 있는 교사, 대학(원)생, 시민 등
- 모 집 : 2012.9.17(월)~10.17(수), 선착순 100명
- 문 의 : 홍보교육실 교육팀(02-2012-6151, 6154)

● 11기 아카데미 주제

- 1강 10.18(목) 광개토대왕비문 읽기
고구려 건국신화를 중심으로
금경숙(동북아역사재단)
- 2강 10.25(목) 광개토대왕비문 읽기
고구려 정복활동과 영토 확장을 중심으로
공석구(한밭대학교)
- 3강 11.01(목) 광개토대왕비문 읽기
수묘인 제도 등 고구려 사회상을 중심으로
조법중(우석대학교)
- 4강 11.03(토) 현장 답사
충주 고구려비 전시관 및 일대
- 5강 11.08(목) 광개토대왕비문에서 나타난 고구려의 천하관
임기환(서울교육대학교)
- 6강 11.15(목) 광개토대왕비를 통해 본 고구려 문자문화
고광익(동북아역사재단)
- 7강 11.22(목) 광개토대왕비문의 서사구조와 무훈기사 새롭게 읽기
여호규(한국외국어대학교)
- 8강 11.29(목) 일본학계의 광개토대왕비 연구와 임나일본부설
연민수(동북아역사재단)
역사아카데미 수료식

<청소년대상 역사 콘서트 행사 안내>

대한민국 청소년(청년)을 위한 역사 콘서트

광개토대왕 서거 1,600주년 기념 광개토대왕이 꿈꾼 나라

- 일 시 : 2012.10.28(일) 14:00~17:00
- 장 소 :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
- 대 상 : 대한민국 청소년 및 시민 등 400명
- 신 청 : 동북아역사재단 홈페이지
- 발 표 : 2012.10.23(화),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 문 의 : 홍보교육실 교육팀(02-2012-6151, 6154)

| 본행사 |

- 이야기 손님 마당
고구려의 왕, 광개토대왕 이해하기
- 청소년 마당
고구려 역사, 광개토대왕 알리기
- 함께 어울리는 마당
광개토대왕에 대한 궁금증 해소하기
- 영상 및 자료 마당
광개토대왕 관련 미디어(영상·사진) 자료 보기

동아시아사 관련 건의사항

-
-
-
-
-
-
-
-
-
-
-
-
-

MEMO

MEMO

MEMO

MEMO

MEMO

MEMO